

제목: UVIC 후기

[이지윤]

AI소프트웨어학과 202323795, 강원대학교

이메일: dlwldbs1564@gmail.com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들어가는 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 빅토리아 대학에서 제공하는 4주 여름 영어 프로그램 4-Week Language and Culture Program에 참여하였습니다. 캐나다의 문화와 영어를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과 함께 배워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에는 큰 기대나 걱정 없이 프로그램에 임하였고, 스스로 비행기를 예매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부풀어진 기대감과 첫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었고, 다른 국가를 경험함에 있어 새로이 트여진 시야를 통해 만족스러운 방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키워드: (예시) #빅토리아#UVIC#밴쿠버#

연수대학 소개

빅토리아 대학(University of Victoria, 흔히 UVic)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주도인 빅토리아에 위치한 공립 대학교입니다. 1903년에 설립되어 1963년에 학위를 수여받기 시작한 이 대학은 여러 국가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으로, 넓은 캠퍼스와 링로드(Ring Rd)라 불리는 원형 산책길이 있어 15분 내에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안팎에는 피너티 가든스(Finnerty Gardens)라는 공원, UVic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서점(Bookstore), 영화관, 스타벅스, 운동시설인 CARSA, 그리고 영어센터 ELC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빅토리아 대학의 영어 센터인 English Language Centre (ELC)는 1970년에 설립되어 일본, 터키, 콜롬비아, 멕시코, 태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러시아, 한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타이완, 브라질, 오만,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ELC는 최고 품질의 ESL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Continuing Studies Building (CST)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며 일상적인 영어 대화를 습득하고, 각국의 문화와 캐나다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2-9주 집중 영어 프로그램(ELPI)과 4주 동안 말하기와 듣기 능력에 초점을 맞춘 소셜 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토론 프로그램(SLC July 4-week) 등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 본교는 해안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0분 거리 내에 해변이 있습니다. 또한, 다운

타운까지는 15분 정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휴양지로 유명하여 멋진 공원과 여러 관람시설이 있습니다. 업타운과 다운타운 모두에 Walmart가 있어 버스를 타고 쉽게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국가로, 각국의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틴(poutine), 피쉬앤칩스(fish & chips), 비버테일(beaver tails)과 같은 독특한 캐나다 음식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음식문화가 잘 맞지 않을 경우 많은 한인식당이 있으니 한인식당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라, bistro chi-Q, XIN, Chimac 등이 괜찮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Summer 4 Week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SLC)의 경우 ELPI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수업 첫날 임의로 배정된 반에서 레벨테스트 목적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그후 잠시의 휴식시간과 UVic 설명, CST 건물에 대한 적응을 마친 뒤, 말하기 테스트를 통해 두 명의 학생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익 스피킹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테스트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레벨3 (ELSP302)반을 부여받아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여 빅토리아 대학에 온 다른 강원대 학생들은 주로 1~3레벨이 분포하였고, 다른 한국인 학생들 중에도 5레벨 학생이 있었습니다. ELPI와 SLC 역시 동일하게 총 5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레벨은 ELPI 200, Upper Beginner.

2레벨은 ELPI 330, Low Intermediate.

3레벨은 ELPI 410, Intermediate.

4레벨은 ELPI 490, Upper Intermediate.

5레벨은 ELPI 570, Advanced.

저희 반에는 일본인 4명, 브라질인 1명, 한국인 7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오전 8:30부터 10:20까지 진행되었고, 20분의 쉬는 시간을 가진 후 10:40부터 12:30까지 두 번째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Christine Rowlandson 선생님께서, 두 번째 수업은 Christina Blake 선생님께서 맡으셨습니다. 두 선생님은 주로 하나의 주제를 제시한 뒤, 학생들끼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또한, small talk의 중요성과 small talk에서 following question, reaction, listening 이 3가지 요소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Cultural Assistant (CA)와 함께 빅토리아의 문화를 체험하거나 관광명소들을 관람하는 활동을 가집니다. 각 반마다 담당 CA가 있으며 저희 반의 경우 Ginny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숙사는 A동과 B동이 있으며, 두 곳은 통로로 연결되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층은 식당인 Cove와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며, 2층은 세탁실과 아주 큰 라운지가 있습니다. 3층부터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이며, 3층은 모두 남학생 4,5층은 여학생이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 전기 담요를 챙겨가 밤에 추위를 그나마 덜 땀던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르게 추위를 타지 않던 사람들은 적당한 온도라며 괜찮다고 하였지만, 전 해가 지고 난 밤이면 아우터나 긴 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날씨는 해가 떠있을 때는 꽤나 덥고 해가 없어지면 꽤나 추운 날씨입니다. 층마다 라운지가 있어 일과가 끝난 후 친구들과 모여 수다 떨며 하루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이 나눠져있고, 샤워실 역시 좁은 거치대를 가지고있어 샤워 물품을 정리해 놓기가 불편하였습니다.

본문

처음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드라마 "도깨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촬영 장소가 캐나다 동부의 퀘벡이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어학연수는 밴쿠버 섬 빅토리아에서 진행되어 퀘벡을 방문해 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캐나다 서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땐,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때에만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아마 부족한 영어실력 때문에 저 스스로도 한국인 학생들과 자주 같이 다니는 경향을 띄다 보니 처음 목표했던 영어 실력 향상에 비해 편하게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고, 빅토리아 관광과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어학연수의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목표했던 것에 비해 많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진 못했지만, 적어도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첫 다운타운 투어는 CA와 함께 방과 후 활동으로 빅토리아의 국회의사당과 Bay Centre, 차이나타운, 기념품 샵 구경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첫 단체 활동이었기에 저에게 말을 걸며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CA가 가이드해주는 투어가 끝난 뒤, 저는 빅토리아 대학에 오기까지 함께 했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빅토리아를 구경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내부도 들어가 보며, 빅토리아에서의 활동들을 즐겼습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국회의사당에 불빛이 들어와 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Cove에서 One card를 통해 먹을 수 있던 식사들은 저에겐 입맛이 맞지 않아 적응하기 어려웠고, 다운타운의 한식당을 주로 많이 다녔습니다. 다운타운 투어를 마치고 난 저녁 역시 XIN에서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다운타운에 익숙해지고자 다음날 역시 CA와 함께 Royal BC Museum을 관람하고, 한국인 친구들과 기념품 샵 구경하고, Chimac에서 파닭을 시켜먹었습니다. Chimac의 경우 한국인 분이 서빙을 하여 더 원활하게 주문할 수 있었고, 양도 가성비 있게 있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가벼운 숙제와 여러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데 셋째날에는 CST빌딩에서 음악 빙고를 하였고, 영어음악, 일본음악, 한국음악 가릴 것 없이 틀어주어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로 방과 후에 제공하는 활동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다른 문화권을 가진 친구들을 함께 교류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추가로 영화 작은 아씨들이나, 캣츠 앤 독스에 나왔던 장소인 크레이그다로치 캐슬을 주말에 방문하여 내부를 둘러보았고, 그날 아침 Art Gallery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주어 들러서 미술품들을 구경한 뒤에 한 번 더 한인식당 수라에 방문하여 한국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의 식당인 Cove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느끼하거나 맛이 없어 음료를 구매하거나 미소 된장국, 샌드위치, 치킨텐더를 고정적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했지만, 대부분의 인원들 역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들만 고정적으로 먹는 듯합니다. 피자나 고기류, 카레 등 매일같이 메뉴가 바뀌어 나오는 Beverage에선 항상 줄이 붙었고, 저는 주로 Grill에서 Ham & Cheese로 샌드위치를 시켜먹었습니다. One card엔 기존에 수업료에 포함되어있던 식사비 약 1000달러가 있었고, 4주간 쓰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었기에 다들 한끼 식사에 2만원 약 20\$ 씩 소비해가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에 맞게 빅토리아 대학 식당의 식사비가 너무 비쌌기에

그 정도 식사비가 충전된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주는 빅토리아 구경과 식사, 생활패턴 적응 등에 힘을 쓰며 지냈습니다.

둘째 주에는 유료 프로그램인 밴쿠버 여행으로 7월 12~14일 동안 밴쿠버의 호텔에 묵으며 CA와 함께 밴쿠버를 구경하였습니다. 저는 밴쿠버의 가스타운과 증기시계를 구경하고, 캐나다 플레이스에 가서 크루즈와 넓은 해안가를 구경하였습니다. 빅토리아의 경우 자연물과 정원이 관리가 잘 되어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던 반면에, 밴쿠버의 경우 높고 장엄한 건물들과 많은 한인들이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망대에서 보는 밴쿠버가 가장 멋진 풍경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 듯합니다. 밴쿠버의 거리 구경을 마저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보았고, 특히나 캐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패션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다비드 램 공원에서 만나 구경하고 근처에 햄버거집에서 끼니를 때운 뒤, Lululemon, stussy 등 캐나다에 만 있는 옷 브랜드의 옷을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였습니다. Lululemon의 경우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스포츠웨어 하이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덕에 캐나다에서만 판매하는 올림픽 응원용 캐나다 버전 옷들을 판매하였고, 기념품으로 구매하기에 가장 용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stussy 역시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 스트리트 하이 브랜드로서 밴쿠버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stussy 밴쿠버 마킹 옷을 판매하여 대부분의 한국인이나 관광객들이 구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stussy를 구매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방문하였지만, 매번 재고가 다 떨어져 아쉽게도 구매하지 못한 것이 맘에 걸립니다.

밴쿠버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한 어르신 분도 같이 다니며 밴쿠버를 이동하였는데, 마침 코스트코에서 기념품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통해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코스트코 멤버십을 통해 다같이 입장하여 캐나다의 코스트코를 구경하였습니다. 창고형 상점이다 보니 대형으로 파는 메이플 시럽이나 영양제, 타이레놀 등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추천하는 곳을 꼽으라면 스탠리 공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스탠리 공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렌트 할 수 있어 자전거를 빌려, 스탠리 공원을 돌았고,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 또는 밴쿠버 시민들 역시 스탠리 공원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밴쿠버로 갈 때에는 넓은 대형 버스를 타고 갔고, 좋은 교통편이 제공되어 프로그램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밴쿠버에서 다시 빅토리아로 올 때에는 다시 페리를 타고 페리 승강장에 도착하자 어린이용 노란색 스쿨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는 내내 불편 했지만, 스쿨 버스를 탑승하는 특이하고 색다른 경험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시 빅토리아로 돌아와서, 수업 때 캐나다의 기념품에 대해 토론하며, 로저스 초콜릿과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 메이플 쿠키와 아이스와인 등이 유명하여 각자 무엇을 사갈 것인지 결정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대화 주제로는 빅토리아의 식당을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빅토리아의 나비 정원에 가서 나비와 앵무새, 홍학 새, 거북이, 독개구리 등을 구경하였습니다. 이곳은 내부에 습도와 온도 등 동식물이 잘 보존되고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두어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습하고 더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습한 날씨가 거의 없고 건조한 느낌이 강합니다. 나비정원 구경을 끝내고, 그 근처에 포도밭에서 직접 재배하여 양조하는 양조장

겸 와인 식당에 갔습니다. 이름은 처치엔 스테이크로 질 좋은 와인을 시음해 보기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으나 저를 제외한 친구들 모두 여권을 챙겨오지 않아 그 자리에서 저 혼자 와인을 시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친구들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방문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저 혼자 마시게 되는 이 상황에 넘 뽕뽕하게 느껴졌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맛있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나비 정원 근처에 부차드 가든이 있어 함께 구경하면 좋았으나, 전 유료 프로그램 중 부차드 가든 역시 등록해 두어 다른 날에 구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처치엔 스테이크 식당을 추천해 주었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이 이곳에 방문하여 좋은 경험을 하여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수업에서는 그룹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 어릴 적에 했던 폭탄 스피치로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한 뒤에 시간내로 주변사람에게 폭탄을 넘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포커페이스 형식의 YES or NO로 한 질문에 대답할 것 같은 긍정과 부정 중 하나를 결정하고 그 뒤에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답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 코인을 주고받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업에 준비해 오셔서 학생들의 대화 수준과 적극성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본 친구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파 함께 학교 근처의 해변을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고 놀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많은 경험과 추억을 남기고자 카메라를 챙겨 갔고 밴쿠버나 빅토리아의 여러 관광 명소를 보며 사진을 찍곤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의 활동 중 몇몇 날은 문화의 밤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반의 경우 ginny와 함께 문화의 밤을 준비하였는데, 각기 다른 문화 권에서 온 사람들끼리 각자의 오락을 공유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7명, 일본인이 4명이었기에 한국의 바니바니 게임과 일본의 슈퍼마리오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우리나라에선 술을 마실 때 하는 술게임으로 문화의 밤 당일 날 술을 마시진 않고 논 알코올 칵테일을 준비하여 게임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친구들에게 이를 설명하여 게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저희 반에서 준비했던 술 게임 부스와 다른 반의 멕시코 인들이 준비했던 음악에 맞춰 의자 뺏기 게임이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함께 저희 반으로 올 친구들을 위해 논 알콜 칵테일 주조 역할을 맡으며 재밌게 보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바빠 흘러가다 보니 4주간의 시간이 이리 빠르게 사라졌나 싶을 정도로 재밌고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어학연수를 계기로 저는 영어 회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목표로는 TOEIC 영어 시험에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지만, 토익이 마무리한 뒤에는 토익 스피킹과 OPIC 역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많은 정보를 알고 갔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재밌게 즐기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기에 정말 뜻깊은 기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캐나다 어학연수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크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오주현 선생님께서 항공권 예매 과정부터 어학연수 준비 과정을 도와주셨기에 쉽사리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참가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